

# 담양, 추경예산 5,569억 편성

### 본예산 대비 총 493억원 증액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등 행복한 자립형 경제도시 조성

담양군이 최근 민선 8기 주요 현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493억 원을 증액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군의회에 제출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올해 예산안은 본예산 5,167억 원 대비 9.5% 증가한 5,66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본예산 대비 488억 원(9.5%)이 증가한 5,569억 원,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5억 원(6.4%)이 증가한 91억 원이다.

분야별로는 농업 분야 125억 원, 문화관광 분야 82억 원, 국도 및 지역개발 72억 원, 환경분야 66억 원, 사회복지 분야 42억 원 등의 순으로 증가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잘사는 '부자농촌'을 실현을 위해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 1억 원, 스마트팜 인프라 구축 사업 3억 5,000만 원, 청년농 창업형 영농시설 조성 4억 1,000만 원,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4억 7,000만 원 등을 반영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행사, 축제 재개로 대나무축제 개최 전 기반시설 정비 2억 8,000만 원, 한여름밤 별빛달빛 축제 6억 원, 군민의 날 기념행사 6,000만 원, 담양한우축제 5,000만 원 등을 반영했으며,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원문화원 기반조성사업 18억 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4,000만 원도 포함됐다.

또한 지역 발전을 견인할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10억 원, 음식특화농공단지 조성 5억 원, 시니어 의료단지 조성 1억 5,000만 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3억 1,000만 원 등도 반영했다. '향촌복지' 시행을 위한 중년취업 운영 지원 9,000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 1억 6,000만 원, 노인복지터온 리모델링

사업 4억 4,000만 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9,000만 원,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확대사업 1억 8,000만 원도 추가로 편성했다.

이외에도 식수전용저수지 신계제 정비사업 19억 원, 무정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21억 원, 평화예술공원 조성사업 16억 원, 동물보호센터 설치 4억 원이 반영됐으며, 민생안정을 위한 운수업체 긴급 연료비 지원 1억 9,000만 원, 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 12억 5천만 원, 농업용 전기 인상 지원 1억 9,000만 원 등도 반영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 1회 추경예산은 물가 상승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군민과의 약속인 '다함께 행복한 자립형 경제도시 조성'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사업을 위주로 편성했다"며, "예산안이 확정되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의회에 제출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담양군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 의결된다.

/담양=정일남 기자



해남 대흥사 '대흥매'가 활짝 피었다.

/천기철 사진작가 제공

## 천년고찰 해남 대흥사 '대흥매' 만개

팔경해남의 천년고찰 대흥사의 고매에 매화가 최근 환하게 불을 밝혔다.

해남군 대흥사 정목당 앞 '대흥매'가 최근 일제히 꽃망울을 터트리며 산사를 은은한 향기로 가득 채우고 있다.

대흥매는 수령 350년 가량의 매화나무로 초의선사가 특히 사랑하였다 하여 초의매라고도 불린다.

다성 초의선사(1786-1866)는 대흥사 13대 종사로서 선다일여(禪茶一如)의 사상을 주창하며 조선 후기 차문화의 중흥을 이끌었다. 당시 직접 창건한 대광명전(동국선원)에 거쳐하던

초의선사는 1811년 일어난 천불전 화재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매화나무를 대광명전 옆 정목당으로 옮겨와 키우게 되었다.

지금에 이른 대흥매는 어른 한아름 크기의 고목으로 기품을 뽐내고 있다. 매년 봄이면 환한 꽃등을 달고, 천년고찰에 빛을 밝히고 있다.

천기철 사진작가는 "대흥매는 특히 향기가 짙고, 꽃이 눈부실만큼 새하얀 빛을 띠고 있어 호남 5매로 꼽히는 이들도 많다"며 "연리지 등 유명한 나무들이 많은 대흥사이지만 초의선사와의 인연 때문에 대흥매를 사랑하는 방문객들이 많다"고 소개했다.

/해남=박병태 기자

## 강진 청년 창업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1인당 최대 2천만원...7명 선정

강진군은 청년의 정착 기회 확대와 청년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강진군에 거주하는 청년이 창업하는데 필요한 현실적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청년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청년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1억 5,000

만 원으로 7명 내외의 청년을 선정해 창업에 필요한 사업장 인테리어, 환경개선, 홍보물품 제작, 첨단시설 설치 등 각종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지원액은 1인당 최대 2,000만 원이다.

지원 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19~45세 이하,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년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4월 13일까지 사업 대상지 소재 읍면사무소(총무팀)를 방문해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제출하면 된다.

강진원 군수는 "청년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경기 활성화의 봄이 고탄력을 받는다"며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기반 확보를 위해 청년창업 지원, 청년 공동체 활성화 지원, 가업2세 청년활동 활성화 지원, 청년 안정 정착 및 자립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청년이 살기 좋은 행복한 강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사업장 현장실사 후,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4월 중 최종 사업 대상자를 청년창업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강진=한태선 기자

## 영광 한농연·한여농, 역량강화 워크숍

한국후계농업경영인영광군연합회(회장 이동주)와 한국여성농업인영광군연합회(회장 최성화)가 최근 국제마을훈련원에서 회원 및 청년농업인 120여 명과 함께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농업·농촌 우리의 역할에 대해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의 특강을 시작으로 '영광군 미래농업의 비전' (광주전남연구원 연구본부장 조창원)과 '농업정책자금 올바른

사용법' (해밀농원 대표 김인한)에 관해 배우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참석자 회원들은 영광군 인구가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생산연령 인구 감소와 농가의 고령 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드는 현실에서, 체계적인 농업의 후계인력 육성으로 농업농촌의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영광군을 만드는 데 공익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한농연 이동주 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힘든 농업환경이 예상되며 급변하는 농업환경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회원 여러분과 청년농업인이 함께 힘을 모아 한마음으로 나아가자"라고 말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축사를 통해 "그동안 회원 여러분의 풍부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선진 농업 도입과 농업인 소득증대 등 영광군 농업발전에 애써주심에 감사드린다"며 "영광군의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후계인력 양성에 힘써 달라"고 밝혔다. /영광=곽용순 기자



나주시의회가 최근 제250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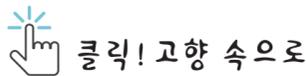
/나주시의회 제공

## 나주시의회, 제250회 임시회 개최

나주시의회(의장 이상만)가 최근 제25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7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19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등 총 37건의 안건심의, 집행부 현안 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주요 사업 현장 방문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먼저, 22일은 나주시의회 소회의실

에서 ▲대중교통 노선 개편 추진 방향 ▲제8기(2023~2026년)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 완료 보고 ▲한국에너지공단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한다. 23일에는 주요 사업 현장 7개소를 방문해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등 현장 소통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나주=조종권 기자



### 진도군민들, 인재육성 장학금 기탁

진도군민들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1,440만 원을 기탁했다.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승원건설 그룹(회장 김승구) 1,000만원 ▲진도군 뉴시협회(회장 오기석) 140만원 ▲한국국악협회 진도지부(지부장 이희준) 100만원 ▲씨월드 고속해리(주) 100만원 ▲임회면 중만 마을회(이장 곽재구) 100만 원을 기탁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해 주셔서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장학금을 기탁한 군민들은 "작은 나눔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빛낼 인재 육성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입을 모았다. /진도=박병호 기자



### 신안, 민원 담당 공무원 '대화의 시간'

신안군은 최근 '공무원이 행복해야 군민이 행복하다'라는 주제로 박우량 군수와 민원담당공무원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민원봉사과장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창구 담당자의 고충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의 장으로 열렸다. 신안군은 대민 공무원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점을 마련하는 등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향후 분기별 1회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고 민원 최일선 읍면 직원과의 소통도 이어 갈 예정이다. 군은 약성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장구, 방호인력을 배치한데 이어 민원담당공무원 보호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신안=이주열 기자



### 농협자산관리 전남서부지사, 신용회복 컨설팅

농협자산관리회사 전남서부지사(지사장 정인식)는 최근 농업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신용회복 컨설팅'을 통해 농업인들의 상환능력이 맞는 채무조정에 대한 지원활동을 강화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농업인의 조기 신용회복과 재기를 위해 농협자산관리회사에서 운영중인 농업인 신용회복지

원제도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원내용은 농업인 개별 채무액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희망 농업인은 농협자산관리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을 할 수 있다. 정인식 지사장은 "신용회복지원은 활기찬 농촌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우성진 기자